

한국건축·도시환경 평가를 위한 주요맥락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李 東 憲

(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1. 서론

1-1 研究의 目的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난제 중에, 우리도시와 건축환경에서 비롯된 난제들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연이어 일어난 대형사고와 참사들은 이 분야의 전면적인 개선과 개혁의 긴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긴박한 상황은 과거에도 여러번 있어 온 전례의 경험으로 보아 최근의 그러한 노력이 장래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물론 그 동안 우리 건축과 도시에서 부업에서부터 도심의 고층건축, 그리고 지하철 건설까지의 성과는 발전의 상징임은 분명하지만, 오늘에 와서 그것들은 오직 건축과 도시공간 속의 한 부분적 영역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고, 그 많은 개발과 건설 사례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선진외국과 같이 이론과 실제의 근접이나 건축과 도시의 조화등 수준 높은 환경을 창출해 내지 못한 점은 분명히 시중의 과정에서나 관련 영역에서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왔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취약점에 대해 정부와 관련 전문인들은 성장의 초기부터 문제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지만, 각 분야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서 독립적 성장과 개발에만 치중하여, 서로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도시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큰 원인을

제공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순과 누락된 문제를 판별할 수 있는 최종 평가의 역할과 중대성마저 기피하거나 간과해 옴으로써, 결국 오늘날 다수의 선의의 이용자들에게 지탱하기 힘든 정도로 무의미한 도시·건축의 장소만 안겨다 준 셈이 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우리건축·도시환경이 혼선과 난맥을 거듭해 온 원인중, 무엇보다도 평가의 내용과 역할이 취약해 온 점을 중시하고, 향후 이 영역의 일관성 있는 기준과 실제 적용 및 시행의 명료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우선 시행 이전에 평가의 주요 맥락이 무엇인지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금 우리도시와 건축은 보다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건축·도시환경 전반의 가치기준을 판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포괄적이며 명료한 평가방법과 기준들이 긴요히 요구되는 실정이나, 불행히도 지금까지 그러한 평가의 전례가 없었고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영역의 자료가 집대성되기에는 상당한 양의 자료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급한 시행안의 제시보다 우선 그것을 위한 이론적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대상은 도시 범주내에서 국한하되, 주로 건축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인용된 사례는 지극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채

택하였고, 방법은 사례자체의 분석보다 사례분석의 시각과 틀을 보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2. 평가 이전의 과제

2-1 평가의 의미와 역할

평가(Evaluation)란 비평(Critics)이나 비판과는 달리, 서로 다른 과정에서 장점의 비교¹⁾라고 압축하여 말하고 있지만, 환경 평가에서는 질적 가치의 향상을 전제로 문제점이나 단점도 비교가 될 수가 있다. 이때 그 문제점은 평가 과정에서 분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궁극적 목적은 부정적 해석보다 긍정적 해석을 위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평가는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며, 사전평가는 다른 사례와 전례의 참고를 통해 목표 설정이나 방법이 전보다 더 선명하게 하고, 사후평가는 장점과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축적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오늘의 건축·도시형상의 결과물이 보여 주듯이 사전이나 사후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2 평가 맥락의 중요성

평가의 장점이 설득되지 못하고 간과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수십년간 사후에 발생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수합되지 못하고 숨겨지거나 가리워져온 데에 있다고 보아진다. 이 때문에 그 다음의 새로운 시행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항상 새로운 시도에서 국내외의 갖가지 사례를 '새로운 사조', 혹은 '새로운 시각'이란 이름으로 반복시행하여, 지금 우리의 도시는 선진 외국의 모든 유사품이 존재하는 장소가 되었다. 오늘날 그 결과는 한 난맥상의 원인이 되었고, 각기 가진 문제점들은 공통분모를 잃고 당해지구나

건축에서 멈추거나 숨겨지게 되었으며, 몇가지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론 불가항력적 내용만 이어져 온 셈이 되었다.

이러한 공통분모의 부재는 곧 평가맥락의 부재와 동일한 의미로, 평가의 내용을 간과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새로운 시도나 시행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줄 수있었던 뚜렷한 대의명분의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

따라서 평가가 실제 오늘의 도시·건축 환경개선에 명료하고도 구체적 역할을 하자면 그 맥락이무엇인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2-3 평가 맥락을 위한 과제

평가가 실제 시행과 역할을 하자면 우선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무엇에 관점을 두는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평가쟁점의 소재와 문제점들의 시각, 그리고 대상계층을 중심으로 그 주요 맥락설정에 대한기준의 근거를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① 평가는 주로 무슨 쟁점에서 할 것인가.

평가의 출발에는 전장에서 밝혔듯이 사전과 사후의 양측면 모두 가능하다. 그 하나는 다른 여러 사례의 경험을 통하여, 당해 시행에 반영될 사전 계획 단계에서의 검토사항들이며, 이 때 모든 사항으로부터 그 평가의 주요 쟁점을 찾는 방법이다. 실제 우리의 경우도 한 건물의 시행 사업전에 반대를 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를 경험한 바가 있었으며, 그 때 반대한 구체적 이유들은 평가의 좋은 쟁점이 될 수 있었다.

두번째는 사후에 생긴 문제점들을 통해 찾는 방법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의 경우 너무나 많아 이미 일반화 되다시피 경험하는 바이다.

이 두 방법중, 전자는 평가사례의 경험을 통한 사전 계획 단계에서의 비교·검토 혹은 타협을 통해 평가 맥락에 반영시키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평가사례의 경험이 많은 외국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고, 우리의 경우는 사전계획의 모순들이

1) Nathaniel Lichfield, Peter Kettle, Michael Whitbread, Evalu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Pergamon Press, 1975. p4

이미 문제점으로 표출되어 왔으므로, 사전계획 단계에서 찾는 방법보다 오히려 사후의 쟁점을 가지고 문제점의 쟁점을 찾는 방법이 평가 골격구성에 훨씬 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

② 문제점을 어떻게 보는가

문제의 쟁점이 평가 맥락의 한 구성인자로 본다면 다음의 과제는 그 문제점들의 쟁점을 두고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가가 또한 중요하다.

문제란 ‘결점’과는 달리, 손실도 있지만 ‘이익도 잠재해 있어 풀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 앞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항상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되는 문제가 설득력을 갖자면 감정(feeling)에서 나온 어휘는 적극 배제 되어야 하며, 객관적 시각에서 관찰된 과제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시각에서 보아도 한 사물에 대한 문제점의 시각은 또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한 건물이나 한 도시가 더 남은 과제가 없을 정도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누구나 각각의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우리도시·건축환경에 대해 지적된 문제는 헤아릴 수 없으며, 그 유형도 또한 다양하다. 범위가 큰 문제, 작은 문제, 표면적 문제, 근본적 문제, 각계 각층에서 본 문제등 수없이 많지만, 모두가 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가의 맥락 구성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 많은 문제들을 놓고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보는가가 관건이 되고, 그 심도나 정도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대형참사와 사고와 같은 충격적, 극한적 일부사례의 문제를 통해본 시각보다는, 전체적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며 손실의 정도가 심한 문제’의 시각이 효과적일 것이다. 충격적 사례의 문제점은 이미 광범위한 문제가 잠재해 왔기 때문에 결국 같은 정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③ 어느 계층을 기준으로 보는가

광범위하고도 손실의 정도가 심한 문제를 놓고 평가를 할 때, 그 평가가 다른 시행사례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현실성을 갖자면, 전문적지식과 방법이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반면에 평가의 요소가 되는 문제점들은 이용자측에서 우선 제기되며,뿐만아니라 많은 이용자들은 설계자와 건축주의 관계로부터 배제될 수가 없고, 또한 이것 역시 사소한 일이 아니다.²⁾ 이때 누구의 문제제기에 기준을 둘 것인가는 참으로 어렵고 우리 현실 또한 이점에서도 뚜렷한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시 두 계층의 역할을 놓고 냉정히 생각하면 전문가는 수여자의 입장이고 이용자는 수혜자의 입장이며,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과거 전문가의 존재는 항상 수여자의 입장에서 시행뿐만 아니라 평가도 독점해 왔음을 새삼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에와서는 전문가의 존재는 수혜자의 사후 피해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존립을 할 수가 없고, 최근에 건축이나 도시의 이론에서 이용자들의 형태 분석이나 보행자도로의 중요성들이 부각된 이유가 이용자 계층의 부각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결국 평가 기준의 계층은 전문가의 지식과 시각에서 보다 이용자측에 더 많은 관점을 두는 것이 우선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평가 맥락을 찾기 위한 기준의 근거는, 사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찾되, 그것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며 심도가 깊은 문제를 우선으로 하고, 최대 다수의 이용자에게서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평가 맥락의 내용과 방법

3-1 사례 선정의 난제

평가가 간과된 가장 큰 요인중 하나는 방법론

2) Friedmann Zimring, Zude 환경설계평가 정철 모외 1인역, 명보문화사, 1988, p8

의 문제보다 관련된 영역의 누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찾아 보는 것이 또 다른 긴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직접 관련 사례와 제도적 뒷받침으로 된 통계, 기타 각종 개발 및 건축심의 자료 등이 축적되고 공개되어 있었으면 참으로 구체적인 현실적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행히도 그 일부 수집은 가능할지는 모르나, 전체적 평가를 위한 맥락 설정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과거 성장 초기에서부터 비록 미미 하나 마 비평의 영역이 생겨 지금까지 존속해 오기는 하였지만, 이 분야 역시 우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역시 사례 선정으로는 미흡한 형편이다.

그후 학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실증적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왕성히 계속되고 있지만, 각 분야별 사례는 오늘날 문제점을 보는 시각의 난맥과 마찬가지로, 분석한 시각의 틀이 각각 달라 평가의 맥이 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기가 힘들다.

연구마다 분석한 시각이 각기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것을 가지고 공통 분모를 찾아 낼 수는 있겠지만, 이는 먼저 방대한 연구사례의 조사와 분석이 요구되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공통 분모를 추출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주요한 시각의 골격은 결국 평가 맥락의 설정과 동일한 의미가 되므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셈이 된다.

그 외에, 선진 외국의 평가 사례에서 그 맥락을 찾아 보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우리와는 풍토와 자원이 다르고 이용자들의 관습과 욕구가 달라, 일부로서 참조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적합한지 가름하기에는 지리나 역사 등에서 또 다른 측면의 분석이 요구되므로 외국의 평가사례 역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보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정에서 부족한 평가의 영역을 찾아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외국도 시초에

그러한 노력해 왔듯이, 우리의 현실에서 찾는 방법밖에 없고 원론으로 돌아가 시도해 보기로 한다.

3-2 새로운 시도의 평가 맥락

원론에서 접근하여 평가맥락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자면 앞서 언급한 최대다수 이용자들의 최대 쟁점의 문제를 가지고 그 맥락을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이 오늘날 우리도시·건축환경에 대해 무엇 때문에 문제를 제기 하는가에 집약 시켜 보면, 각각이 나름대로 근거와 이유가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점이 공통적이다.

그러면 그들이 인위적 물리환경, 즉 인공 구조물인 건축물이나 도시의 시설물에 대해 바라는 욕구속의 공통적인 요구조건이 무엇인가 찾아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어떠한 한 집단의 이용자들이 하여금 설문을 돌려 직접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작업을 위해 '어떠한 질문으로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물을 것인가'하는 내용작성 단계에 와서는 그 내용의 골격자체가 평가의 주요 맥락 없이는 작성이 힘들다. 따라서 이방법 또한 채택하기에는 무리다.

이용자의 행태에서 그 방법을 찾아내기는 비록 무리가 따르지만 그들의 행태에서 한가지 분명한 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집을 선택할 때 많은 경험을 할수록 좀더 안목이 넓어지고, 적어도 최초의 선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그것이고 이는 주변에서 공통적 현상으로 흔히 볼 수 있다. 즉 처음의 선택조건이 다른 집으로 옮겨 갈때마다 처음과 똑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고 거의 대부분 달라지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틀림없이 그전의 집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그 반대의 욕구로 다음의 선택에서는 그전의 문제점 해소와 동시에 또 다른 잠재력을 발견 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항상, 막연하지만 더 좋은 조건의 욕구가 내재되어 있고, 그 요구조건은 욕구의 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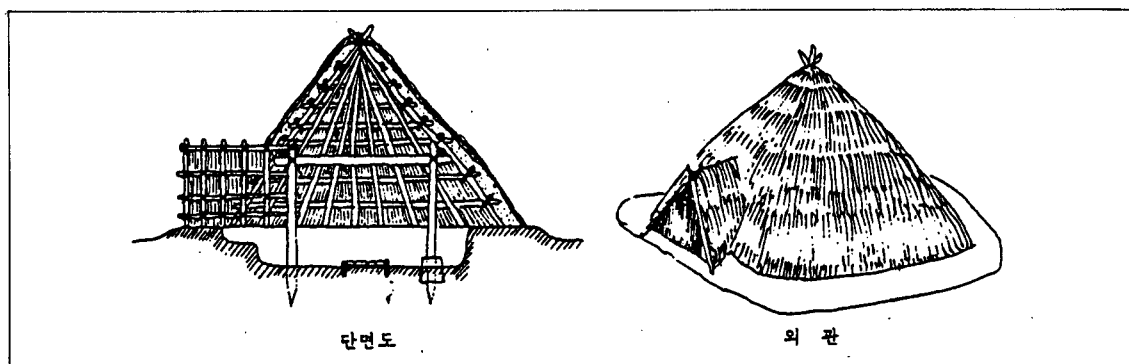


그림 1. 선사시대 주거복원도

분에 해당된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성인자, 즉 요구조건은 참으로 다양하며 그 욕구조건 대상물, 즉 건축물을 구성하는 인자도 또한 다양하다. 그래서 요구조건과 그 대상물의 인자는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조건중에서 공통된 요구조건을 찾아, 그것이 어떠한 사례의 대상물, 건축물에 순수하면서 극대화 되어 표현되어 있다면, 그 사례를 통해 공통된 요구조건을 찾을 수 있고, 그 반대인 주요쟁점의 문제점과 평가 맥락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관건은 평가맥락을 찾아 내는 데, 핵심의 관건이 된다.

3-2-1 맥락을 찾기 위한 사례선정 조건

무수히 많은 유형의 사례중 어떠한 사례를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 ① 국내에 있는 것
- ② 대다수 이용자의 요구조건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
- ③ 시간의 흐름에 요구조건이 잘 표현된 것.

위의 조건에서 ①과 ②항을 보면 현재 우리도 시에 있는 보통 현대 주택이나 혹은 일반 용도의 건축물로 한정되지만 되지만 ③항을 고려하면 역

사적유적과 전통건축물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선정된 현대건축과 전통건축의 사례중에서 다시 범위를 좁히면 ③항의 조건에 따라 전통건축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또다시 전통건축에서 유형별로 나열하면 선사시대 유적부터 조선조까지의 많은 사례를 들 수 있고, 이 중에서 보편적 요구조건이 가장 순수하고도 그 표현이 극대화 되어 있는 건축은 바로 선사시대의 지상주거가 가장 합당한 사례로 귀결된다. (그림 1참조)

그러면 선사시대의 지상 주거물을 두고 다시한번 위 ①, ②, ③항의 조건에 합당한지를 검토해 보면,

첫째, 국내의 기후, 풍토, 자원의 여건이 반영되어 있고,

둘째, 고고학적 입장에서 그 주거는 그 당시 특별한 지위의 소수층의 것이 아니면서, 그 장소의 여건에서 주거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도구 그리고 기술까지 포함된 요구 조건이 보편적으로 극대화되어 있으며,

셋째, 최근 사례와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통된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사시대의 주거는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례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아진다.

3-2-2 사례분석 방법

선사시대의 주거분석을 통해서 나온 주요한 관

점이, 현재 대다수 이용자들의 요구조건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세세한 요구조건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그 근원이 되는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그 영역이 넓어져 무엇 때문에 그러한 요구조건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 인자들이 작용하여 많은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지만 선사시대나 원시시대 생활인의 요구조건은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요구조건은 욕구와 일치될 경우가 많고 바라는 요구조건은 원형적 유형에 가까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요구조건들의 큰 틀을 좀더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이사례를 통해서 원형적 표현이 된 요구조건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사례근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이용자들의 주요한 요구조건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최대 문제의 쟁점으로 삼아 평가의 맥락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

3-2-3 사례를 통해 본 욕구와 맥락

그러면 선사 주거의 사례를 어떻게 보는가 관련이 되는데, 여기서 관건으로 보는 시각을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① 포괄적이며 필연적 결과만 관찰할 것.
- ② 관찰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것.
- ③ 감각적이나 감상적 관찰은 최대한 배제할 것.

《제1욕구 : 제1요구조건》

이미 널리 소개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유물·유적은 날로 늘어나 활발한 활동과 함께 여러 학자들이 그 당시의 생활과 문화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연구자들은 발굴된 모든 것을 다 모아 한자리에 놓고 각종기구를 면밀히 검토하기도 하고, 발굴현장의 사진과 실측된 장소의 크기 형태 등을 놓고 각실의 위치 놓인 물건 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비롯해서 문화·자원 등을 파악한다.(그림 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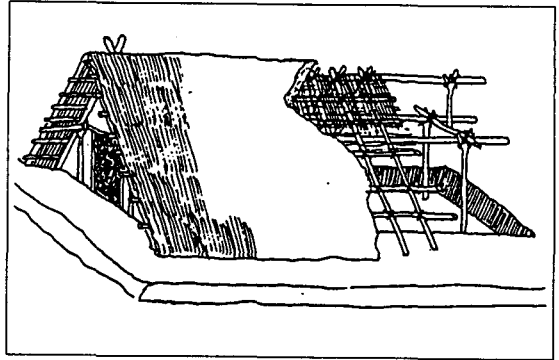


그림2. 집을 짓기 위해 사용된 소재들이 보인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유·무의 대상물을 두고 본 논제의 요구조건을 추출하기 위한 관건은 어떤 특정지역의 사례를 두고 어떤 물건이 출토되었으며, 건축에 소요된 자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등 고고학적 분석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 장소와 유형을 막론하고 출토된 모든 것, 그 자체가 의미하는 점이다. 석기토기를 비롯해서 집속에서 출토된 모든 것을 모아놓고 관찰해 보면, 당시의 그 선사인은주거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소재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면 모두 동원했을 것이다. 그 외에 그가 가능한 기술·기법도 총동원 되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말하자면 주거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소재와 기술에 대한 요구조건이 극대화 되어 있으면서 순수하게 표현되어 사실이다.

바로 이 요구 조건은 지금도 크게 다를바 없는 것임을 우선 알 수 있다. 즉 오늘의 이용자 대다수도 예나 지금이나 주어진 그들의 여건에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리적 대상과 기술 중 더 좋고, 더 많이, 더 크게 바라는 요구조건은 선사인과 크게 다를바 없다.

다음 그 대상물을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하게

알수있다. 선사시대의 유적에서 집이 되기위한 것 만 고르면 다음과 같다.

- ① 돌, 나무, 흙 기타..... 물리적 소재
- ② 시간, 힘, 기법..... 노동과 기술

이것을 다시 현재에 와서 건축물이 되기 위해 바뀐 것을 보면.

- ①' 구조, 재료, 설비 기타 자재등
물리적 소재..... 재화
- ②' 노동, 기술, 시간..... 기술 용역

위의 ①과 ②를 보고 ①', ②'를 보면, 선사시대의 건축물 소재와 기술은 오늘에 와서 모든 것이 재화와 용역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그때의 소재와 기술은 지금의 재화와 용역으로 바뀌었을뿐, 요구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사시대는 그 선사인이 물리적 대상을 가져오는 데는 주변의 자원이 허락하는 한 무제한으로 가져 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 즉 투자의 한계가 그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대다수 이용자들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바라고 있으며 공급자와 대립된 관계가 성립되고 최종적으로 합의, 즉 균형이 되어야 집이 가능하여 비로소 그의 자산이 된다.

이것은 바로 경제의 영역이며, 이 요구조건 역시 《경제영역의 요구조건》임을 알 수 있다.

《제2옥구 : 제2요구조건》

다시 선사주거로 되돌아가 면밀히 관찰해 보기로 한다, 제1의 조건때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사례를 선정하지 않고, 또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그림 3참조)

우선 그 주거는 현대주거나 고건축과 완연하게 구별은 되나, 유형은 모두 비슷하다. 비슷한 유형의 여러 곳을 비교해 보면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전체적으로도 조금씩 다르고 내부도 다르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외부와 내부도 미묘한 관

계를 가지면서 놓인 도구로 보아, 공간 배분을 적절히 한 의도가 분명하다. 아무리 아득한 수천년 전의 선사인의 생활일지라도 가옥내의 여러 활동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³⁾ 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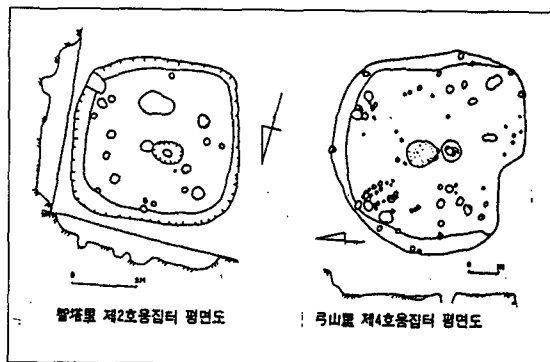


그림3) 같은 용도의 주거이나 두 주거는 평면이 서로 다르다

구성에서도 최선을 다해 생각하여 결정하였거나 혹은 나중에 바꾸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 주요한 이유는 당연히 그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좀 더 편한생활을 위한 욕구의 일부임은 거의 분명하다. 활동이나 동작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도구·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진다. 요약하면 그가 그 장소와 주변여건에서 생활하는데 최대한 편리하게끔 노력을 다했었다는 순수한 표현이다.

이점 역시 그의 강한 요구조건이었으며, 지금의 이용자들도 그 선사인의 요구조건과 대조하면 크게 다를 바 없는 점이 공통적이다. 움직이거나 일을 할 때 좀더 편하게 그리고 좀더 빨리 되기를 바라는 요구는 선사인의 요구와 변함이 없다. 선사인이 바라던 그러한 편의의 요구를 정리하면,

- ① 위치
- ② 실 배분
- ③ 통로
- ④ 필요한 도구·기구

3) 任孝宰, 한국 고대문화의 흐름, 집문당, 1992 p97

이것은 다시 지금의 건축에서 옮겨보면, 위치, 실 배분 등의 요구는 같으나 물리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①' 동선

②' 설비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물리적 수단은 달라졌지만 좀더 편하고 빠르게 되기를 바라는 욕구나 요구조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다. 건축뿐만 아니라 생활도구 전반의 그러한 욕구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반영되어 왔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문화요 문명이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곧 《편의 영역의 요구조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3욕구:제3요구조건》

선사시대의 출토된 유물을 모아 놓고 다시 한번 보면 또 하나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용도의 물건이든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거치면서 형태가 다듬어지고 장식도 다양해짐을 볼 수 있다. 타제석기 모양이 마제석기 그것과 비교하면 좀더 세련된 모양으로 바뀐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고, 때로는 테두리에 알 수 없는 정교한 장식을 한 것도 볼 수 있다. 무슨 목적인지 역사학자의 관심이지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그러한 일련의 모든 표현들은 시각의 충족을 위한 시도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이다.(그림 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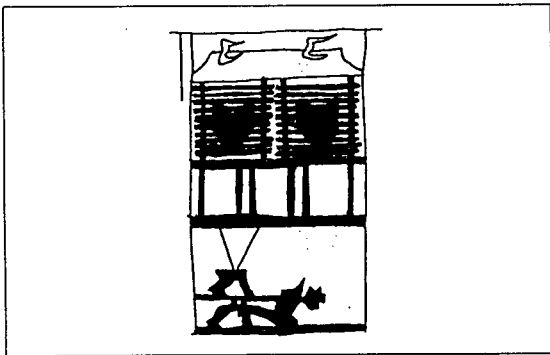


그림4. 시각적 충족을 위해 시도한 벽화
(마선구 제1호분 벽화)

또한 사용한 장소들의 변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유있는 생활을 말해주는 정황이 많다. 수천년의 선사인이라해도 동물과 같이 먹고 일하고 지는데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석기 때부터 이땅에 문화가 존재해 있다⁵⁾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여유있는 생활을 위한 장소나 시각적 충족의 욕구는 지금의 현대인과도 또한 공통적이라 볼수있다. 오늘날 이러한 욕구는 어떠한 식의 형태로든 모든 물리적 대상물에 철처하고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최근 이용자들의 그러한 요구조건도 선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항시 내재되어 있다. 비록 모양은 세련되지 못한것이 많지만 좋은 형태에 대한 강한 선호를 비롯해서 실내장식, 마당장식, 정원, 벽 색채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오늘의 우리 건축·도시에서는 그 대상이 형태와 장소들, 즉 여유있고 아름다운 생활의 장소를 만들기를 포함하여 그 속에 조각,그림,식재등, 갖가지 욕구하는 형태의 표현들이며, 이는 곧 《문화 영역의요구조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최대한의 객관적 관찰을 통하여 선사인의 욕구와 현재인, 즉 최근의 이용자들의 공통적 요구조건을 3가지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규명해 보았다.

이렇게 보면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곧 문제점으로 반영되므로, 위의 3가지 관점의 요구조건의 틀도 문제점을 보는 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건축물이라 하여도 사용자에게 적어도 위의 3영역의 요구조건과 반대조건, 즉 경제적 손실과 기능적 불합리, 그리고 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곧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무수히 있었던 것은 그 반증이기도 하다. 또 겉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 같지만, 문제의 근원을 보면 3가지 맥락중에 해당됨을 알수있다.

따라서 요구조건의 맥락을 문제점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그 맥락 역시 평가의 맥락으로 보아도 무리없을 것이다.

5) 金貞培, 선사문화와 한국인의 형성, 한국학연구원. 지식산업사, 1988, p30

3-3 평가의 측정과 방법

평가가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계획이나 시행의 차원에서 나온 결과가 실제상황에 반영의 가능성을 높이자면, 위의 3가지 맥락에 의한 세항목들의 추출이 요구되나, 각 항목들은 건축과 도시차원에 걸쳐 긴밀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종합하여 가치평가를 하자면 최종적으로는 국가나 지역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의해서 3가지 맥락중 건축과 도시 차원에 걸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설정된 맥락으로 세항목에 의한 가치평가의 세항목 추출은 방대한 자료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 의한 방법론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3-3-1 단위차원의 건축물 평가방법

① 한 맥락에 의한 평가

위 3가지 맥락에서 하나의 맥락에 의한 평가는 지극히 단순하다. 예를 들면, 경계의 영역에서 재료나 구조의 결함 등 독립적 항목은 그 즉시 지적과 함께 평가가 될 수 있고 또한 개선과 수정도 독립된 차원에서 가능하다.(그림 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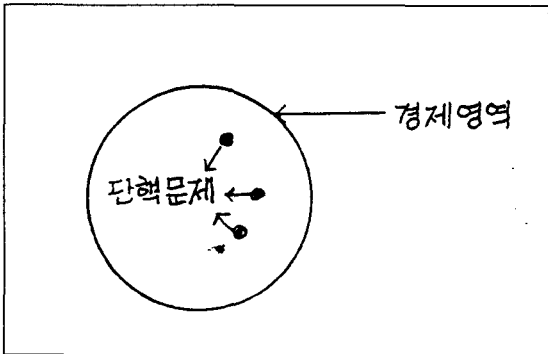


그림5. 단핵적 문제는 즉시 평가가 된다.

② 관련 맥락에 의한 평가방법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가 일체적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대상은 독립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매우 드물고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진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동선이 불편하다는 것은 동선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 연결된 공간배치도 함께 관련된 문제가 되며, 이것은 곧 서로 상충관계가 된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상보관계와는 대립된 사항이라서 충돌된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선 어느 항목이 파급효과가 큰지 비교해보고, 큰 쪽의 평가를 중심으로 맥락을 잡는다.

따라서 평가는 무엇이 상충관계에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파악된 문제의 해결은 계획 차원에서도 큰 쪽의 맥락을 우선으로 해결하면 큰 문제부터 해결되는 셈이다.(그림 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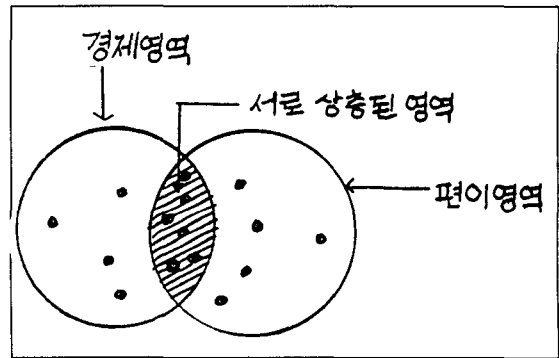


그림6. 빗금친 부분이 서로 상충된 문제로 볼수 있다.

③ 종합적 평가

3가지 맥락에서 전부 만족한 경우, 즉 모든 물리적 대상물과 기술·용역이 경제적이고,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으며, 형태가 만족적이고 장소가 의미가 많은 건축물이나 도시의 사례는 긴 역사 통해서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건축은 유토피아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위의 세가지 맥락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특별히 창작된 명작은 못되더라도, 적어도 경제와 편의, 문화적 측면에서 침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 조건이다. 즉 최소한 기본적인 3가지 맥락에서 문제점을 극소화 시킨다는 전제이다. 따라서 세가지 맥락의 평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그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축물이나 도시건설의 실현에 있다기 보다 평가 대상의 건

축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
을 하는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그림 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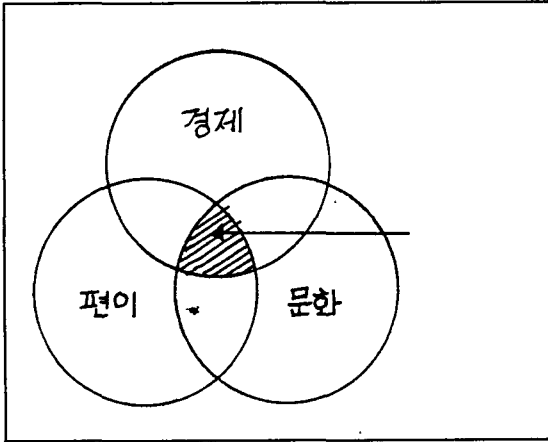


그림7. 빗금친 부분이 적을수록 가치가 크다

3-3-2 단지와 도시차원의 평가 방법

단위 차원에서의 건축의 평가는 압축된 상황
선 공통된 요구조건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고 종
합적으로 보면 그 질적 가치도 측정할 수 있었다.

단지나 도시에서는 그 대상물과 문제점, 그리
고 이용자계층의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보기에는
매우 복잡한 것 같으나, 건축에서 본 요구조건의
맥락설정 목적이 바로 이러한 혼선과 난맥의 문
제점을 보는 틀의 설정에 있었고, 건축에서 본 요
구조건은 대다수 이용자 계층의 보편적 요구 조
건이었으므로, 단지나 도시의 평가의 맥락도 건축
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단지·도시상황에서 건축
평가의 맥락에 맞추어 예를 들어 정리해 보면, 아
래표와 같다.

	건 축	도 시
· 편의의 영역	· 공간배치 · 동선	· 토지이용 · 교통과 기반시설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에서의 요구조건도 도시
건설과 사업에 관련된 모든 투자가 관련이 되므
로 건축과는 평가 대상의 내용이 늘어날 뿐 평가

의 맥락은 다를 바 없다.

문화영역도 건축에서의 형태와 장소·활동이
평가 대상이면 도시나 단지도 그 문맥은 마찬가
지다.

여기서 건축의 경우와 틀린 점은 건축에서는
단위차원에서 세 가지 요구조건에 의한 평가만
하여도 실제 계획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만, 도시
차원에서 여러 집단의 건축물들이 각기 독립적
상황에서만 요구조건이 극대화되어, 인접 건축물
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 효과를 위한 조
절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절과 통제는 마치 요구조건의 반대측에서 대
립된 영역이라 볼 수 있지만, 그 궁극적 역할과
목적은 침해당한 사용자들의 보호에 있으므로,⁶⁾
또 다른 사용자 요구조건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세목 항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책과 법 운영
- ② 심의 및 평가
- ③ 전문인 교육

이는 곧 하나의 큰 《운영의 영역》이라 볼 수
있고, 그 역할은 건축의 3가지 요구조건을 포괄적
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지나 도시차원에서의 평가맥락은 건
축에서의 3가지 맥락외에 《운영의 영역에서 요
구조건》이 추가된다.(그림 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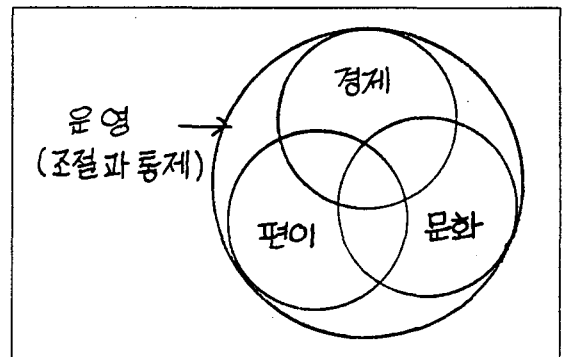


그림8.

6) Solesbury W, Poliy in Urban planning.
Pergamon press, 1974, p57

4. 평가 시행을 위한 과제

4-1 공통된 과제들

지금까지 평가의 역할을 좀더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우선 그 맥락을 찾아 보는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실제 평가시행을 위해서는 맥락의 설정때 보다 더 현실적 상황파악과 그 배경의 연구가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설정된 주요맥락은 이용자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근거로 설정하였지만, 이용자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회적 영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국가의 정책도 평가의 간과나 누락에 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적용이나 시행을 위한 세목들의 설정에서 서로 관계된 상충조건과 중복된 항목들을 최대한 배제하자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배경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표에서 당시 새로운 건축과 개발은 그 필연적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급격한 개발계획의 시도와 시행은 각 분야, 특히 경제분야에서 미리 그 문제점들이 예고되었고⁷⁾, 그 후에 따른 오늘의 우리도시·건축환경의 혼선과 난맥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그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변화가 뒤따라⁸⁾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침으로서, 도시공간 문화와 이용자들의 순수하고 보편적 요구조건을 부동산투기, 과도한 전시효과등으로 왜곡시킨 결과가 되기도 했다⁹⁾

또한 전문인 역시, 일제때 일본의 서양교육 육성¹⁰⁾을 출발점으로, 전 분야에 걸친 서구화 교육은 건축에까지 적용되어, 우리의 부존자원을 인식치 못하게 함으로서, 서구의 이론 수입에 주로 관심을 두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서구 이론 수입은, 30여년 전 곧 근대화에 반영되어 많은 시행 사업과 사례에 적용시켰고, 우리이용자들로 하여금 5000년간 전통적으로 이어온 욕구에 충분한 충족에 미치지

못하는 근본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사례는 국내외에 걸쳐 모두 필요한 하나, 국내의 사례가 우선으로 함은 물론이다. 평가의 기본 맥락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한 맥락이 구성요소가 되는 세목들은 국내의 실정에 맞게 하자면, 위와 같은 배경의 지식이 없이는 또 다시 이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반증은 외국의 평가 사례가 우리 현실에 반영된 바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건축·도시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선의 시행이 어려웠던 점은 관련분야의 전문 취약성보다 사후 평가를 간과 한데서 더 중대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평가의 주요한 역할을 좀더 현실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과 시각을 통해서 그 주요맥락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평가의 환경개선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게 하자면, 주요 맥락 설정이 가장 주요한 과제이다.

2. 평가의 주요 맥락 설정은 방법론이 문제이고 방법은 기준과 범위가 필요하며, 그 범위는 최대한수 이용자들이 문제삼는 주요 쟁점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 주요쟁점의 문제점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데 있고, 욕구의 구성인자, 즉 요구조건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 사례선정을, 가장 원형적으로 반영된 선사시대 주거를 택하였고 이를 현재 이용자들의 요구조건과 거의 일치하는 지를

7) 변형윤,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 지식산업사, 1980, p206

8) 변형윤,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 지식산업사, 1980, p31

9) 최병두, 도시화와 도시계획의 도시경제학적 접근,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 1989 p15

10) 신용하, 애국계몽운동, 한국학연구 입문, 지식산업사, 1988, p430

검토 하였다.

4. 이를 검토한 결과,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경제적 영역과 편이의 영역,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침해당하면 주요 쟁점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았다.

5. 또한 이 기본적 요구조건을 곧 평가의 맥락으로 보고 건축과 도시환경에 적용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시는 물론 건축에까지 한 맥락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6.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 의한 평가 결과는 환경개선에 현실적 내용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자료분석의 시각과 문제점을 보는 시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7. 하지만 실제 시행을 위한 세목들의 설정에는 전문가, 이용자도 문제가 전혀 없는 바는 아니므로, 그 배경이 되는 전례의 역사와 비교나 참고가 된 다음에야 평가의 세목들이 우리 현실에 맞게 작성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Nathaniel Lichfield, Peter Kettle, Michael Whitbread, Evalu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Pergamon Press, 1975
- Friedmann Zimring, Zude 환경설계평가 정철모외 1人역,명보문화사,1988,
任孝宰, 한국 고대문화의 흐름, 집문당, 1992
- 金貞培, 선사문화와 한국인의 형성,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8,
- Solesbury W, Poliy in Urban planning. Pergamon press, 1974,
- 변형운,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 지식산업사, 1980,
- 변형운, 한국경제의 진단과 반성, 지식산업사, 1980,
- 최병두, 도시화와 도시계획의 도시경제학적 접근,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 1989
- 신용하, 애국계몽운동, 한국학연구 입문, 지식산업사, 1988,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he setting new context for the evaluation of the urban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Korea

Lee, Dong Heun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Kwandong)

ABSTRACT

The reasons why the urban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Korea has become distorted in spite of many cases of experience in development for last 30years, are deeply rooted in rather having disregarded or omitting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than the shortness of the skill or techniques.

So now it requires strongly setting new context to improve the recent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by arranging the confused problems and finding the hidden ones before the real and practical evaluation.

The new context proposed in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contents, that are economics, function, and culture.